



남원 주천면, 보은건설과 저소득층 집수리 협약

남원시 주천면(면장 김재하)은 지난 4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집수리 관련 업체인 (유)보은건설(대표 문봉근)과 협약식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낡은 주택의 균열과 화재위험 등 안전관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집수리의 신속성과 비용 절감을 통하여 좀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정부예산을 사용하는 집수리는 사전 조사에 의해 계획적으로 일괄 추진하는지 보니 갑작스러운 사고나 고장에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기에 이를 보완할 수 대책으로 이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다. 문봉근 대표는 "주천면과의 협력을 통해서 업체의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 협조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김재하 주천면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주민 행복을 위한 전기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과 서비스체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과학분야 진로탐색 프로그램 흥미진진

정읍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이언스 데이' 성료

정읍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최한 과학분야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지난 2일 성황리에 진행됐다. '사이언스 데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정읍의 초·중학생 50명이 참여해 국립중앙과학관과 신세계 넥스퍼리움, 대전 엑스포 아쿠아리움에서 다채로운 과학 체험을 즐기며 과학에 대한 꿈과 흥미를 키우는 시간이었다. 청소년들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탐드론 체험, 전기쇼, VR 체험, 화성 테라포밍, 과학 과학자의 바이러스 전시 등 흥미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해 과학의 다양한 측면을 체험했다. 이어 과학을 주제로 꾸며진 신세계백화점 넥스퍼리움으로 이동해 제트기 키트 조립 체험을 하고,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최신 시제품을 시연 미래 과학기술의 방향을 엿보고 과학자로서의 꿈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대전 엑스포 아쿠아리움에서는 생동감 있는 생물들과 디지털 미디어아트가 어우러진 전시를 통해 생물과의 교감을 느끼며 과학이 인간과 생명 사이의 연결을 만들어 내는 신비로운 경험을 쌓았다. 김지용 학생(정읍서초 6)은 "과학기술이 사람들의 한



계를 뛰어넘게 도와준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다"며, "과학 기술을 통해 상상했던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과학자의 꿈을 키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박하정 팀장은 "이번 사이언스 데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과학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었기를 바란다"며 "내년에도 청소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진로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하게 발굴해 지역 청소년들의 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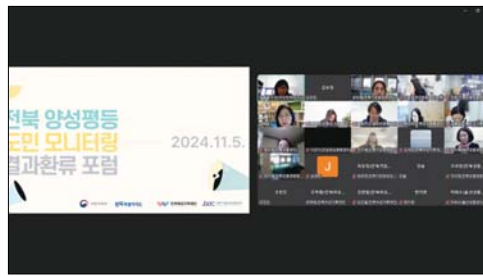
한스트링인 한명숙 대표, 중기부 장관상 수상

전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인 (유)한스트링인 한명숙 대표가 '2024 소상공인대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대회는 소상공인과 창업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뛰어난 업적을 이룬 유공자를 발굴·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5일 전주대에 따르면 (유)한스트링인은 수제바이올린 전문제작과 탄소소재 융합으로 만든 탄소 바이올린 활을 개발, 악기의 고급화는 물론 환경 보전에도 힘쓰고 있는 기업이다. 한명숙 대표는 "탄소 바이올린 활 제작을 통해 탄소관련 전문인력을 채용·육성하는 동시에 고품질의 탄소 활로 품격 있는 연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이상우 센터장은 "(유)한스트링인의 수상은 기업의 노력과 우리 센터의 지원이 결실을 맺은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 양성평등센터, 도민 모니터링 결과환류 포럼

전북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소 산하 전북거점형양성평등센터는 5일 '2024 전북 양성평등 도민 모니터링 결과환류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전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 도민들의 접근이 편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포럼은 안태운 대표(젠더와평화 연구소)가 '문화·관광 양성평등 모니터링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안소로지 전담연구원(전북거점형양성평등센터)이 '전북 지역 문화·관광 양성평등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어 추주희 조교수(전북대학교)가 좌장을 맡아 문선영 컨설턴트(전북성별영향평가센터), 정형 회장(역사공동체연합회), 성지혜 실장(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소), 윤희주 실무관(전남여성가족재단 양성평등센터)의 토론이 펼쳐졌다. 이날 포럼은 △지역 문화·관광 양성평등 모니터링의 필



요성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전북 양성평등 도민 모니터링 개선 의견으로 구성됐다. 전북여성가족재단 정정희 원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관광지가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기초생활수급 어르신, 남원 노암동에 특별한선물



남원시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등에 훈훈한 나눔의 소식이 전해왔던 터, 그 주인공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인 70세 어르신인 정성스럽게 직접 뜨개질한 수세미 100개와 바구니를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주인공은 "어려운 형편 때문에 정부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지만,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차이와 노암동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웃을 위해 손수 만든 물품을 나눠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시 한우 관련 단체, 한우 900kg 기부

정읍시의 한우 관련 단체들이 지역 사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어려운 이웃에게 한우를 기부하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순정축산(업협동조합), 전국한우협회 정읍시지부, 단풍마인 한우 영농조합법인 등은 지난 4일 정읍시청을 방문해 3140만 원 상당의 불고기용 한우 900kg을 소포장(600g 단위)에 정읍시에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한우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애정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세 기관단체장들은 "날이 부쩍 추워지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든든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전했다. 기탁된 한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저소득 가정과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년 기부를 이어오시는 순정축산, 한우협회 정읍시지부, 단풍마인한우 단체장과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온정이 넘치는 시민 중심 복지 도시 정읍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시, 내달 10일까지 '남원의 맛' 공모전

남원시가 오는 12월 10일까지 '남원의 맛을 찾아서' 주제로 남원의 맛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남원의 맛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네이밍과 표, 남원의 맛집을 찾는 영상 공모전까지 국민참여형 브랜드 개발 차원에서 기획되었다. 네이밍과 표 부문은 내부 심사와 온라인 투표로 최종 선정되며 표 최우수작에는 1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고, 박대이더로 조사된 남원의 맛집 23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영상 공모전은 △최우수(1작품) 200만원 △우수(2작품) 150만원 △장려(10작품) 30만원 등 총 33명에게 1,000만원 상당 상금이 수여되며, 세부사항은 남원시 누리집 고시, 공고 및 별도의 공모전 홈페이지(namwonma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민자 남원시 보건지원과장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이번 공모전을 통해 맛의 고장 남원을 널리 알리고 남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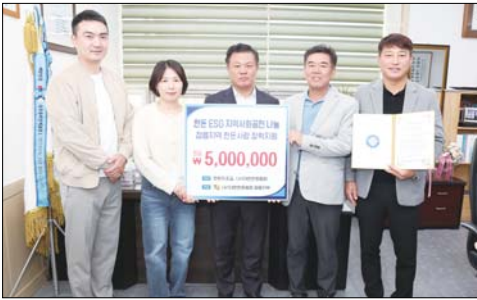


맛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군 주천면 박희종 작가 서각전시회

진안군 주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11월 한 달 동안 면민들을 위한 박희종 작가의 서각전시회가 열렸다. 박희종 작가는 한국예총 예술상 및 진안군민의 장 문화장을 수상하는 등 인정 받는 작가로 2014년도 주천면에 귀농해 진안향토작가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공유갤러리 대표로 제2 육성에 힘쓰고 있다. 이번 초대전은 '주천면민을 위한 가을문화신행'이라는 주제로 작가의 작품 16점이 전시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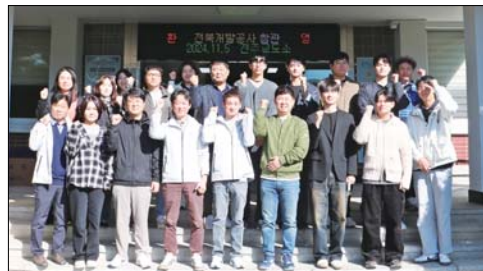
한돈협회 정읍시지부, 올해 두 번째 장학금 기탁

(재)정읍시민정학재단은 대한한돈협회 정읍시지부(지부장 안용화)로부터 5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받았다고 5일 밝혔다. 안용화 지부장은 "어려운 가정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이 기부금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학수 시장은 "지역 교육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기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인재 육성을 위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돈협회 정읍시지부는 지난 7월에도 5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한 바 있으며, 2018년부터 지금까지 총 1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역 학생들에게 전달해 왔다. 또한 저소득층과 소외 계층을 위해 꾸준히 돼지고기를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실천하며 따뜻한 관심을 이어가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진안군 정천면 지사협, 겨울맞이 내복나눔

진안군 정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박동현, 민간위원장 안인재)는 지난 4일 85세 이상의 고령어르신 및 독거노인 78가구에 내복을 지원하며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동절기를 맞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로, 지역사회의 훈훈한 정을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 안인재 위원장은 "추운 겨울,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전하고 싶었다"며 "이런 작은 정성이 큰 힘이 될 수 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동현 면장은 "이번 나눔이 어르신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길 바라며, 지역사회가 서로 도우며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교도소, 전북개발공사 참관 실시

전주교도소(소장 인영삼)는 5일 전북개발공사 소속 직원 22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참관은 전북개발공사 직원들의 청렴 의식 고취를 통해 건강한 조직 문화 및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구제시설 참관으로 수용자 교정교화 및 재사회화의 중요성 등 선진 교정행정을 이해하는데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참관에 참여한 전북개발공사 직원은 "참관을 통해 교정행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무엇보다 업무 수행에 있어 법질서 준수 의식 함양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이야기했다. 전주교도소 인영삼 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청렴하고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는 교정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오만호 기자



구천동농협, 건강증진 무풍면 '농촌왕진버스' 실시

구천동농협은 5일 무풍읍농민회센터에서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농촌왕진버스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협중앙회에서 주최하였으며, 구천동농협 주관하에 진행되었다. 이날 농촌왕진버스는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촌 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였으며, 주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실시했다. 구천동농협 김성근 조합장은 "이번 농촌왕진버스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단순히 의료 서비스 제공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